전법 일기

시누이가 미운 마음 대화로 녹인 보살님

"스님! 스님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면 돼요."

"그래요? 그럼 지금 할까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시작된 팔순 노보살님과의 대화.

"스님!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내용은 대강 이렇다. 남동생이 요양병원에 가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가슴 아파서 괴로운 심정이고 잠도 편히 못 주무신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은 시누이가 남동생을 요양원에서 나오게 하고 집에서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된다는 법이 있겠는가. 잠시 이야기를 들으며 노보살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대개 듣는 과정은 비슷한데 괴로움을 알고 나면 서로 대화하면서 원인을 찾는다. 보통은 괴롭다고만 하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사람이다. 나는 보살님에게 물었다.

"그럼 아내도 아이들도 남동생 돌보는 것을 포기한 것 같네요. 거기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생각해봐도 동생이 늘 아프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니 그 식구들이 긴 세월동안 견디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

보살님은 그제야 동생이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조금은 유연해지는 모습이었다. 부처님과 보살님도 누군가의 마음을 세 번 들어주는 대화 방식을 사용했듯이 나는 보살님에게 조언했다.

"지금 가장 힘들어할 분은 동생의 아내가 아닐까 싶어요. 동생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그분의 입장을 들어주세요. 세 번만 하시면 길이 보일 거예요."

그날 법회를 마치고 저녁 즈음 보살님의 전화를 받았다.

"스님! 시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입장이 이해돼요. 그동안 시누이가 부담스럽고 원망스러워서 말도 못 붙였는데 1시간 넘게 통화하고, 만나서 식사하기로 했어요. 제가 미처 시누이 마음을 살피지 못했네요."

보살님에게서 오전 상담과 달리 많이 안정된 목소리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불편하고 대화가 망설여지는 것은 나도 상대를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화를 해보니 내 편이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길이 보이게 된다. 노보살님은 이걸 바로 실행하셨으니 지혜롭고 용감하고 훌륭한 수행자시다.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을 만나 진정되고 그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 공감하고 위로해 새로운 용기 갖도록 돕는 일. "붓다가 인도하는 이 길은 근심·걱정·탄식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념처경〉에서 말하고 있다. 노보살님에게 그 길을 일러준 것 같고 그로써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신 것을 본 것 같아 보람 있는 하루였다. 참 고맙습니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송마나의 **시절인연**

나는 어떤 용의 모습일까

갑진년(甲辰年) 구정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청룡(靑龍)의 해에 들어섰다. 용은 12지(十二支)의 동물 가운데 유일한 상상의 동물로 머리는 낙타, 뿔은 사슴, 눈은 토끼, 귀는 소, 목은 뱀, 비늘은 잉어, 발바닥은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용을 마귀의 상징으로 언급하지만 동양에서는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용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겨 임금이 입는 옷은 곤룡포(衮龍袍), 임금이 앉는 의자는 용상(龍牀)이라 하여 왕권을 상징했다. 사찰에서도 용은 불법을 수호하거나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의 상징으로 불전의 기둥이나 외벽, 범종을 매다는 고리에 용을 그리거나 조각했다.

인류 최고의 지혜서라고 일컫는 주역(周易) 또한 중천건(重天乾)괘는 용으로서 괘사를 해설하고 있다. 주역 64괘의 모든 언어가 상징이지만 중천건괘와 중지곤(重地坤)괘는 상징 중의 상징이다. 특히 첫 번째, 중천건괘는 잠룡(潛龍), 현룡(見龍), 비룡(飛龍), 항룡(亢龍)으로서 용이 주체가 되어 세상 만물이 변화하는 원리와 인간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길을 밝혀 준다. 용은 물속, 땅 위, 하늘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상의 생명체이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고, 밝음 속에서도 살 수 있다. 작아질 수도 있고, 거대해질 수도 있다.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며 자신의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다양한 용들 가운데 어떤 용의 모습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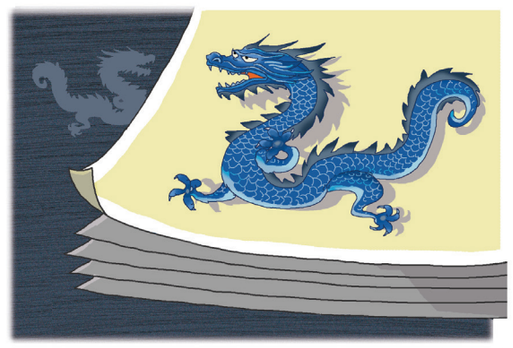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맨 처음, 잠룡(潛龍)은 물에 잠겨 있는 용이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형상이랄까. 이제 막 무엇인가를 시작했으니 날뛰지 말고 오직 힘을 기르면서 능력을 축적하라는 뜻이다. 무명과 미망으로 헤매던 내가 불법(佛法)에 귀의하여 조용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모습이다.

두 번째는 현룡(見龍), 이제 뭍(田)으로 나와 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느끼는 단계이다. 슬며시 세상으로 나가보지만 아직 머리를 곧추세울 수는 없다. 현룡재전(見龍在田)이라. 몸을 드러낸 용이 밭에 있으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꿔야 한다. 즉 밭이란 농사를 짓는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밭을 일컫는다. 탐진치(貪瞋癡)로 뒤덮인 마음의 밭을 갈고닦아 무심(無心)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5효)는 비룡(飛龍)이다. 드디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른다. 내가 왕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가장이 되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올랐다. 하늘에 올랐다는 것은 견성(見性) 했다는 것이다.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 참 자기를 알게 되었다는 가르침이다.

마지막은 항룡(亢龍)이다. 더 나아갈 데가 없는 용이다. 내가 으뜸이라고 머리를 드러내지 않는다.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영원을 살아간다. 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다. 내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이다.

중천건괘는 용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팔정도(八正道)나 십우도(十牛圖)를 떠오르게 한다. 용의 해를 맞이하여 나는 어떤 용의 형상으로 수행하고 있을까? 〈작가〉

기자칼럼

불교라는 구슬, 어떻게 꿸까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이 불교계 언론사를 대상으로 특별전 '스투파의 숲' 설명회를 가졌다. 특별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대기하던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스투파의 숲' 전시 굿즈들이었다.

기획전시실 앞에 마련된 스토어에 들어가봤다. 전시 도록이나 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 스투파의 숲 티라이트 홀더, 보리수 꽃 컵캔들, 남인도 연꽃 넝쿨문양 전등갓, 향유를 담을 수 있는 굼바 보타닉 베이스 등 라인업이 화려했다.

직원에게 가서 가장 인기품목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직원이 소개한 최고 인기 상품은 '스투파의 숲 보배 108염주'였다. 수행자의 성취와 성공을 기원하는 호안석 원석과 명료한 자각과 예술적 감각을 의미하는 자수정 원석, 정화를 상징하는 백수정 원석으로 제작된 티베트 형식의 108염주 가격은 무려 10만원. 그럼에도 가져다 놓기가 무섭게 관람객들이 구매해 간다고 한다. 설명회가 열린 날도 '일시품절'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옆에 있는 몇몇 미니 염주와 단주들도 품절된 것들이 상당수였다. 이쯤 되면, "굿즈 사러 박물관 간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왜 이리 인기가 좋냐"는 기자의 질문에 판매 직원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전시 기획 초기부터 제품들을 선정했다. 108염주는 전부 수공예로 작업해 가격대가 있다. 그럼에도 찾는 사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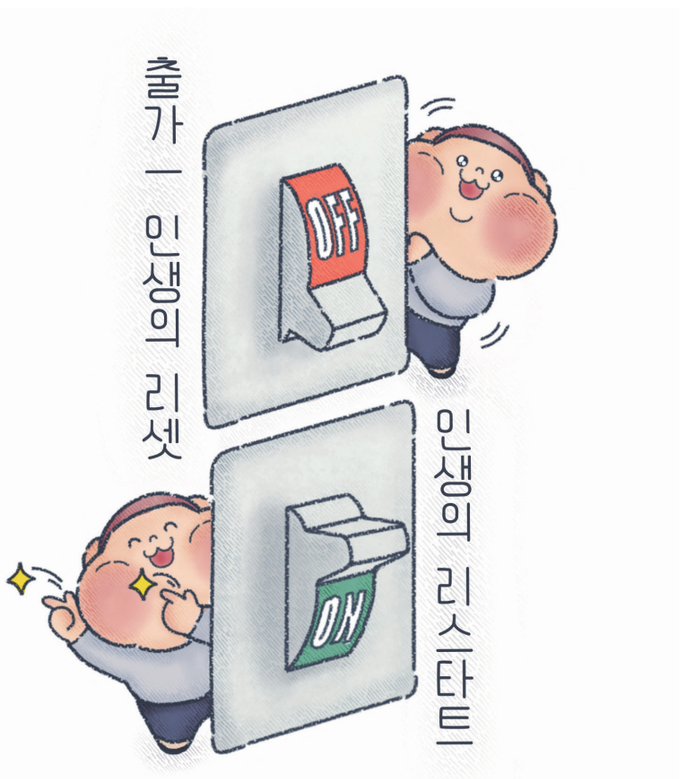
필자가 감탄한 기획력이다. 전시와 함께 판매 굿즈를 연계 기획해낸 것과 단순한 불교용품점에 가면 흔하디흔한 108염주를 작품으로 기획·제작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108염주는 누구나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와 같이 누구나 구매하길 바라는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불교라는 구슬을 문화라는 실로 어떻게 꿰어낼 것인가. 이것이 불교계의 숙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글 bubjang & 그림 milmil

어싱 매트·베개·온열방석 특판 할인

※ 어씽(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씽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구절초 샴푸 증정

기간 : 2024년 1월 25일~2월 13일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S

~~판매가 1,980,000~~

⇒ 할인가 1,800,000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매일 30분, 찜질로 면역력깨움!

그래핀 온열 어싱매트

#깊은잠 #면역력 #건강회복 #붓기 #몸이개운해짐 #정신건강



하루 15분

하루 15분, 앉아만 계세요!

그래핀 좌훈 케겔운동기

#케겔 #좌훈 #남녀공용 #근적외선 #하체코어근육 #항문질환 #음파운동기



숨 그래핀 어싱 베개(아치형)



특허청 KAA 대한아토피협회 FITI 테스트 항균99.9% FITI 테스트 6대 중금속 검출 안됨 KATRI(한국의료시험연구원) 테스트 완료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